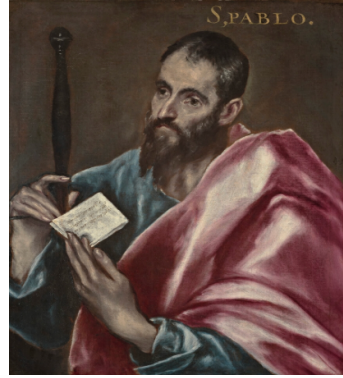


기획시리즈-성인 열전 11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25일)에  
알아보는 바오로 회심: 박해자 회심,  
그리스도교의 세계화를 열다



성인명 바오로 (Paul)  
축일 6월 29일  
성인구분 성인  
신분 사도, 순교자  
활동지역 ??  
활동연도 +64/67년경  
같은이름 바울로, 빠울로,  
빠울루스, 파울로,  
파울루스, 폴

25일은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이다. 회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별도의 축일을 정하면서까지 회심을 기리는 것은 그리스도교에서 바오로 사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고, 바오로 사도의 회심이 끼친 영향이 그만큼 엄청나기 때문이다. 신약성경 전체 27권 가운데 바오로 사도가 쓴 것으로 나오는 서간은 무려 13권. 그렇다면 바오로의 회심은 무엇이고, 또 어쩌서 그렇게 대단한 일인 걸까.

독실한 유대교 신자 시절

서기 5~10년쯤 로마제국 타르수스(터키 남부 지역)에서 태어난 바오로는 독실한 유대교 신자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였다. 어려서부터 철저한 종교교육을 받은 바리사이로, 율법만이 구원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 율법 이상주의자였던 바오로가 율법을 호되게 비판한 예수를 받아들일 리 만무했다. 율법에 도전하다 처형당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다. 게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니... 부활은 역사가 끝나는 날 일어날 사건이라고 믿는 바오로에게는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였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다혈질적인 바오로는 그런 예수를 믿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다.

사건은 서기 33년쯤 바오로가 다마스쿠스 교회를 박해하려 가는 길에 일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

"내가 길을 떠나 정오쯤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이며 내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바오로)야,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나와 함께 있던 이들은 빛은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내가 여쭙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장차 네가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모든 일에 관하여 거기에서 누가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나는 그 눈부신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 나와 함께 가던 이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앞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십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니아스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시어,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의로우신 분을 뽑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을 망설입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무아경에 빠져,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어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습니다. '주님, 제가 회당마다 다니며 주님을 믿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한 사실을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인 스테파노가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저도 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가거라. 나는 너를 멀리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려고 한다.'"(사도 22,6-21)

바오로 사도의 체험담

사도행전을 쓴 루카는 이 외에도 9장 1-19절과 26장 9-18절 등 모두 세 번에 걸쳐 바오로의 회심 이야기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모두 매우 극적인 묘사다. 성경에는 루카가 아닌 바오로 사도가 직접 말하는 체험담도 나온다.

-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뵈지 못하였다는 말입니까?"(1코린 9,1)
-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1코린 15,8)
-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라.' 하고 이르신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느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습니다."(2코린 4,6)
-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가까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주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어떠한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다."(갈라 1,15-16)
-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필리 3,12)

바오로는 자기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다. 바오로는 자신의 삶에서 그토록 중요했던 회심 사건을 몇 차례에 걸쳐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루카는 달랐다. 바오로 본인이 직접 한 말이 실상에 좀 더 가까울지 모르겠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바오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체험했는지, 다시 말해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바오로가 완전히 판사님이 됐다는 사실이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다. 비유하자면 독립군을 때려잡던 일본군 앞잡이가 들도 없는 독립투사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바오로 회심의 의미

바오로의 회심은 그리스도교의 분수령이 됐다. 바오로 사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그리스도교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오로 사도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실 초기 그리스도교는 예루살렘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지역 교회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오로는 이후 복음을 전하는 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도가 됐다. 세 차례에 걸친 바오로의 선교 여행은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 전체로 확산하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 유대인 중심의 지역적·민족적 그리스도교가 인류 전체를 상대로 하는 세계적 종교로 탈바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바오로의 회심은 바리사이 바오로를 사도 바오로로 거듭나게 한, 그리스도교가 보편 종교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결정적 사건이었다.

연중  
제 4 주일  
2024년  
01월 28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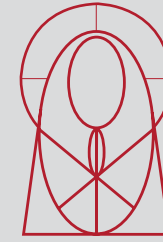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율법학자들 가운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파울로 베로네세, 1560, 프라도 미술관, 스페인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신명기 18,15-20
- # 화답송 시편 95(94),1-2,6-7,11,12,7,12-9(◎ 7,12과 8,1)



후렴: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7,32-35
- # 복음 환호송 마태 4,16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 # 복음 마르코 복음 1,21,28
- # 성가 입당 41      봉헌 212, 217      성체 162, 167      파견 77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 양행자(스콜라스티카) - 가족, 유병기(베네딕도) 가족, 썸머셋 구역
- 오경선(원선시오) - 가족
- 선점환(마리아)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이동현(요셉) - 이순재(마리아) 가족
- 이호연(테레사) - 안 마리아

**미사지향 (생미사)**

- 윤석로(이나시오) 부제님 가정 - 정 테레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오애희(율리아나) - 정 테레사, 백상헌(요셉) 가족
- 윤 넬리 - 가족
- 오용덕(헨리코), 오경숙(세실리아) - 성가대
- 곽 율리아나 - 한상철(빈첸시오) 가족
- 이종권(베드로) - 한상철(빈첸시오) 가족, 노스에디슨 구역
- 조인(로사리오), 조혜남(로사리아) - 김영필(안토니오) 가족
- 오용운(토마스아퀴나스), 오은주(로사) 가정 - 송진영(마리스텔라)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1/21 주일 헌금 (116명) .....	\$830
• 2차헌금 (Catholic Education) .....	\$272
• 교무금.....	\$1,190
이용문(1)      박화성(1-6)      오현주(1-2)	
서영원(1-2)      허중(1)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애희(율리아나)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율리안나
송희수(글라라)		

**제 66차 기초 성령 세미나**

- 일시: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5시 - 3월 17일(일) 오후 5시 30분, (3박 4일)
- 장소: 뉴튼 분도 수도원 (297 US-206, Newton, NJ 07860)
- 강사: 김정경 실바노 신부(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회 지도신부), 미 동북부 사제단
- 신청 마감: 2024년 2월 29일(수)
- 참가비: \$390/1인 (숙식제공)
- 신청문의: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kaccrs.ne@gmail.com

**레지오 마리에 교육협의회 캐나다(몬트리올, 퀘벡) 성지순례**

- 일시 : 2024년 4월 25일(목) - 4월 27일(토)
- 인원 : 선착순 35명
- 참가 자격 : 레지오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견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
- 신청 마감 : 2024년 2월 25일까지
- 지도 신부: 장재명(파트리치오) 신부
- 참가비 : \$800 (2박 3일 전용차량, 호텔, 식사 포함)
- 문의 : 꾸리아 단장 채미영(테레사)

**2차 헌금**

• 2월 4일 : Catholic Spirit (교구 가톨릭 신문사 지원)

**2024년 1월 주일 미사 일정 안내**

• 1월 28일(주일) 한국어 미사 오후 3시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님

**설날 합동 위령미사 신청**

• 2월 4일(주일)은 설날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설 위령미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 2월 14일 오전 9시 한/영 통합 미사 (성당)  
• 2월 14일 저녁 7시 한/영 통합 미사 (경당)

**친교 봉사 일정**

• 2/25 이스트브런스윅 • 3/17 피스브릿지 • 4/21 노스브런스윅

**1월 빵과 포도주 봉헌 봉사자**

• 1/28 전광수, 전옥주

**성지 가지 수거**

• 오는 2월 14일(수요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보관중인 성지가지는 2월 11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Rosary Altar Society 모임**

• 일시 및 장소 : 2월 4일 (주일) 오전 10시 친교실  
• 미팅 시간 동안 친교실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성당 달력 배부**

•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2024년 달력을 배부하오니 교우분들께서는 한 가정 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구역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장에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성당 교우 주소록 갱신**

• 주소록 작성을 완료하신 후 각 구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2월 11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2/4분기 전체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2월 18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이스트브런스윅 구역모임 (구역장 : 한은경 에밀리아)**

• 일시 및 장소 :1월 28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제임스 체키오 주교님 미사**

• 일시 : 2월 25일 (사순 제2주일) 오전 10시 30분 한영 통합 미사  
• 제임스 체키오 주교님께서 우리 성당에 오시어 미사를 봉헌해 주십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21일(주일) 오오한 예비부제님의 이모님이신 양행자 스콜라스티카 자매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우리 성당을 위해 많은 기금(주차장 공사 등 4만불 상당)을 봉헌해 주신 양 스콜라스티카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세금 보고용 교무금 납부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쉼겨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3.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4. 바닥 청소
5.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 단속 확인 바랍니다.

**제1독서: 신명기18,15-20**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호렘에서 집회의 날에 주 너희 하느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 그들이 한 말은 옳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님께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7,32-35**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르코 복음 1,21ㄴ-28**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래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is given to us.